

The Monthly Music & Performing Arts Magazine 'Auditorium'

1988년 8월 1일 창간(이월 1일 발행) 통권 54호

1983년 11월 1일 창간(이월 1일 발행) 통권 54호

1987년 1월 1일 국유출판물 제138호·100-151·중정로1가58-1

품 위 있는 가정의 예술 교양

객석

8

● 긴급 인터뷰

남북합동음악축전 제의한
윤이상

● 특집

통일을 위한 예술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 새롭게 떠오른 세계 예술축제들

20세기 걸작의 전시장, 뉴욕아트페스티벌
클래식과 모던의 랑데뷰, 파리페스티벌
현대연극의 동질성 추구한, 미쓰이페스티벌

● 집중기

이제 우리도 음악원 설립 필요해
예술인 추천, 불만 88 문화올림픽 작

● 원을 거

한양학원 이룩한 **김연준의 생활음악**
국회신임 문공위원장 **정대철의 예술**

89 학년도 예술중고교, 음악대학
입시 실기과제곡 발표
프랑스학생운동과 영상문화

별첨부록 ■ 공연종합안내
객석가이드



'거인의 잠', 82×32cm, 캔버스

인간의 본질회복을 꿈꾸는 도화술사



화가

안창홍

서울의 빛과 그림자를 형상화하고 싶어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짐승처럼, 화가 안창홍이 서울거리에 오척단구를 끌고 나타난 것은 지난 3월이었다. 무슨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가방끈을 단단히 조여 어깨에 가로질러 메고 길을 나선 그는 '서울에 살려 온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의 그림자를 쫓아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식솔들과 떨어져 부산을 떠났다는 것이다.

탈서울을 부르짖으면서도 마음은 서울에 두고 몸만 시골로 가져가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늘어나는 마당에 그의 서울행은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은 틀림없다. 80년대 들어와 4차례의 개인전과 여러 단체전을 통해 발표한 작품으로 화단 일각에서 그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그림에는 다른 어떤 작가와도 구별되는 민감한 상황의식이 내포되어 있고, 회화적 변용의 감수성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내려져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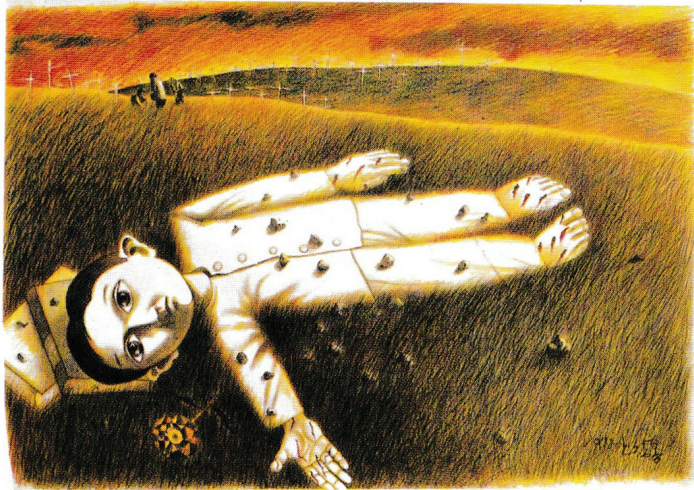
그림을 그리다가 손의 감각을 잃고 폐업을 한 친구가 물려준 화곡동의 화실이 그의 차지였다. 부산에서 후배가 올라와 맨발로 뒹굴 수 있게끔 바닥에 마루를 깔아주었고 무명시절부터 깊이 사귄 애호가인 상경을 기념하여 선물했다는 미술재료가 선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제 그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는 일만 남은 것이다.

"서울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그린 작품들이 모이면 개인전을 열고는 다시 떠나야지요. 지금 생각으로는 강원도로 가서 몇년 더 떠돌다가 부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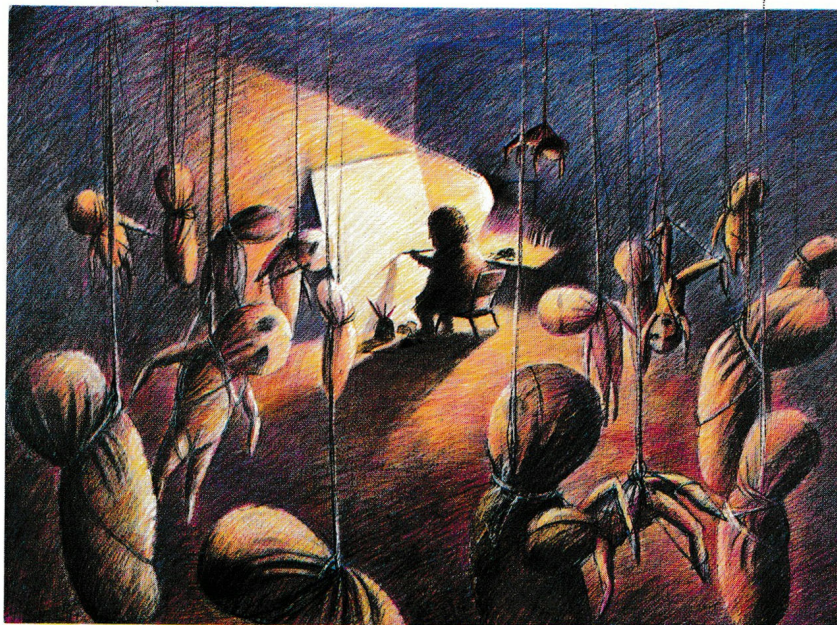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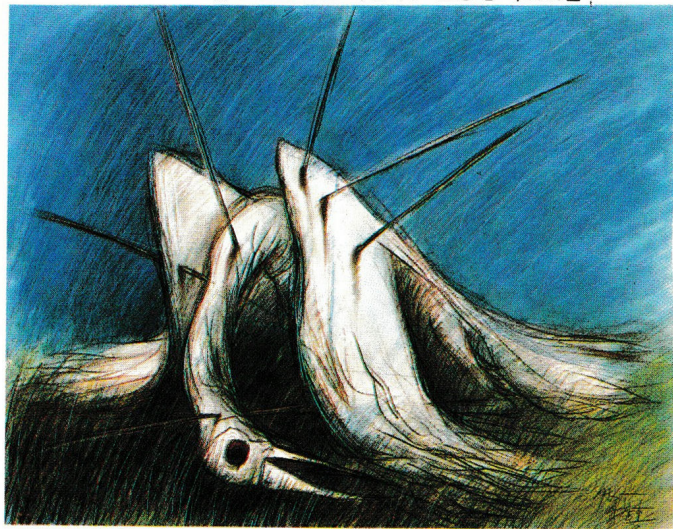
지리산의 연봉이 구름처럼 펼쳐져 있고, 그 산봉우리에 사람이 누워 있다. 직감적으로 옳은 일만 골라 행하는 의인의 모습으로... '거인의 잠'은 그가 서울에 와서 처음 그린 작품이었다. 서울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 작업실을 나서며 그는 늘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모양이었다.

"서울은 복잡하면서도 허공에 떠있는 화려한 애드벌룬처럼

'들의 비가,' 109.5×79.5cm, 종이+색연필, 1987년



'새,' 109.5×79.5cm, 종이+드로잉 잉크, 1986년



'화실풍경,' 109.5×79.5cm, 종이+색연필+콘테+파스텔, 1984년

속이 텅비에 있는 도시입니다. 개미떼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걸은 부드러우면서도 속으로는 항상 음모가 진행되고 있지요."

지리산의 의인은 서울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고 싶었던 것일까. 그의 눈에는 사람들의 가슴까지 덮어 버릴 정도로 짙게 드리운 서울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림자란 빛이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빛의 방향에 따라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것이다. 그 빛은 어디서 오는가, 어디로만 비추는가.

"나는 서울의 빛과 그림자를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그리기만 하면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을 겁니다. 그 작업의 조형성은 부산에서의 삶, 울바았던 지난 날의 인생수업이 보장해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가 다닌 대학은 자갈치시장

1953년 경남 밀양 출생, 1973년 부산 동아 고등학교 졸업. 이 두 줄의 짧은 약력은 화가로서 살아남기 위해 그가 겪어야 했던 지난 과거를 반추해 주는 듯하다.

흔히 행하지 않은 삶은 모르는 것만 못하다고 하지 않는가. 그는 관념은 체험으로 깨부수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고등학교 2 학년 때부터 학교 교육과는 담을 쌓고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들을 겪으며 구체적이지는 못했으나 대학의 허구를 절감하고 미술대학 진학을 단념하고 자갈치시장에서 일을 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잔뼈가 굵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 것이죠.”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자가 자신에 대한 도전이 그의 청년기를 지탱해 주는 친구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두려워질 때도 있어요. 어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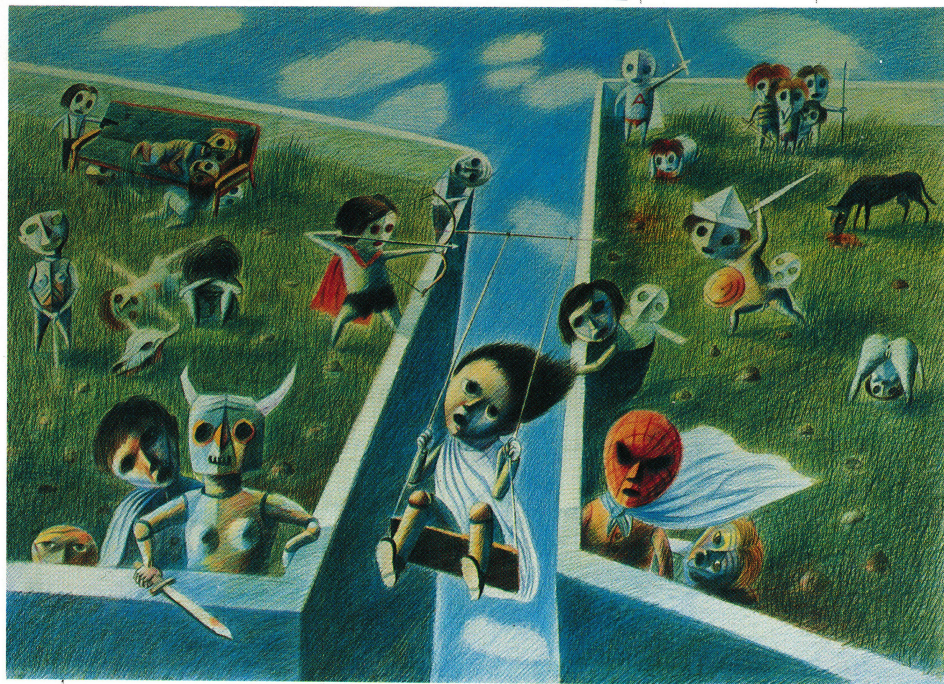
폭발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돌적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어릴 때는 신동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커서는 미친놈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매사 시원시원하게 해결할 줄 아는 내 자신을 믿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었다. 나이 스물이 넘어 고교를 졸업하던 날 그는 미술실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미술선생님이 마침 들리셨는데, 여태껏 한마디도 가타부타 말씀이 없던 양반이었는데, ‘그림을 그려도 굶어죽지는 않겠다’라고 불쑥 내뱉었다. 안창홍은 그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교 졸업선물로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한다.

이후 10 여년간 그는 철저하고도 혹독한 수련기를 거친다.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었고, 순간순간마다 용단을 내려 앞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불투명한 생활이 계속된다.

‘들의 비가’라는 작품이 젊은날의 초상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황량하기 짝이 없는 들판이다. 저너머로 공동묘지가 보이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인다. 그들판에 애늠은이처럼 보이는 한 젊은이가 책을 베고 누워

‘위험한 놀이,’ 109.5×79.5cm, 종이+색연필, 1983년



얼굴들 (설치작업)



‘버려진 인형,’ 130.3×89.4cm, 천+유화물감, 1987년

있다. 누가 돌맹이를 던졌는가, 손과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다. 죽음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눈빛은 너무나 생생하여 깊은 연민을 느끼게 한다.

“상처받고 쓰러진 우리의 얼굴이지요. 한창 보람찬 일거리를 찾아 일을 해야 하는 나이 아녘니까. 그러나 어쩔 수



‘얼굴,’ 각각 26.5×36.5cm, 나무+채색, 1986년

없는 시대를 살다가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제 스스로 일어날 기력을 상실한 젊은이들이 안타까웠어요.”

결국 화가란 그림을 통해 자기의식을 전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 하겠다. 그의 머리속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할까.

“나의 그림을 흐르는 기조는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제는 민중이다. 모더니즘이다 라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본질 회복을 위한 새로운 조형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의 마음이 차가우면 작품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요.”

요즘 젊은 작가들의 경우 어느 한가지 모습을 조형의 주제로 삼아 그림이 양식화되고 상투적으로 변화면서, 무엇무엇만을 그리는 작가라는 식으로 이미지가 굳어져 가는데 비해 안창홍은 작업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편이다. 이것은 그가 그림을 그리거나 그리지 않을 때나 늘 생명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지는 까닭일 것이다.

글·채충석 기자

사진·염문종

추천평론가의 말

성완경/미술평론가

안창홍의 작품의 주제들은 낮익은 것들이다. 공격적인 것, 힘의 지배, 죽음의 환기, 고독과 훼손 등.

이 주제들은 기본적으로 안창홍의 개인사적, 자전적 표지들로서 마치 저 허허로운 별판의 허수아비처럼 그의 예술적 공간의 여기저기에 불구의 외다리 모습으로 늘상 세워져 왔던 것이다.

안창홍처럼 사람됨에서나 예술에서나 정신적 여행의 일관된 색채를 뚜렷이 유지해 온 작가를 달리 찾아보긴 쉽지 않다. 이 일관성을 유지시킨 기둥의 하나는 그의 개인사적 체험에 뿌리한, 훼손된 세계에 대한 공포와 고독감이고 다른 하나는 그 팡타즘(fantasme)을 숨은 버릇처럼 늘 되풀이해 틀림없이 그려내려고 했던 그의 확고한 그림솜씨의 즐김과 자부심, 그 버릴 수 없는 애착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애착과 자존은 안창홍의 예술의 매력과 덕성을 만드는 중요한 인자이면서 또한 그의 예술을 훼손된 세계속에서의 반사적인 자기위안으로 축소시키는 결함 인자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나는 갖고 있다.

안창홍의 예술은 아름답고 병든 것이고 그리고 작은 것이다. 이것은 그의 작품의 상당수가 그것이 인형이든, 동물이든, 인간이든 대개 단순 도상이라는 점과, 이와 반대로 드라마를 함축한 화면인 경우에도 그 주제가 대개 자전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으로도 일부 설명된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그의 그림은 좁은 범위로 한정된 상상화라 할 수 있다. 애착과 자존의 저 깊은 향기를 내뿜는 그의 예술 공간은 또한 자기생애 깊숙히 숨어있는 저 가시나무에 찢려 파홀리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나는 안창홍의 이 상처가 더 넓은 공간—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역사의 공간이든, 더 많은 상징의 섬세한 조직으로 짜여진 문화의 공간이든—의 포용으로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